

젊어진 혁신도시...40세 미만 62%

5월 기준 인구 3만8272명...조성 초기 2014년보다 10배 ↑ 20~30대 33.2%...19세 미만 28.6% 지난해 첫 1만명 돌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가 조성 초기의 10배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영유아·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나주시 빛가람동(736만㎡·약 222만평) 주민등록인구는 3만8272명으로,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4년(3895명)의 9.8배로 증가했다.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 2014년 3895명에서 1만2452명(2015년)→2만1405명(2016년)→2만8266명(2017년)→3만819명(2018년)→3만2478명(2019년)→3만6284명(지난해)→3만9282명(올 5월 기준)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혁신도시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0세부터 39세까지 젊은 층 인구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30대 인구가 8051명(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19.9%·7621명), 0~9세(16.6%·6371명), 20대(12.2%·4675명), 10대(12%·4589명), 50대(10.1%·3864명), 60세 이상(8.2%·3101명) 등 순이었다.

혁신도시 인구 3명 중 1명 꼴(33.2%)은 20~30대이었다. 지난 2014년 1533명이었던 혁신도시 '2030 인구'는 2015년 4853명, 2016년 8085명으로 늘어난 뒤 2017년(1만412명) 처음 1만명을 돌파했다.

■ 혁신도시 연령대 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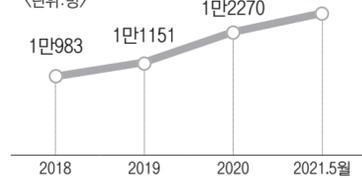
이후 20~30대는 1만983명(2018년)→1만1151명(2019년)→1만2270명(지난해)→1만2726명(올 5월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 전체 인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2014년 39.4%에서 올해 33.2%로, 6년여 동안 6.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는 혁신도시 19세 이하 영유아·청소년 인구가 처음 1만명을 넘긴 해이기도 하다.

19세 이하 인구 비중은 매년 30% 안팎을 오가

■ 20~30대 인구 증가 추이



며 혁신도시의 주요 인구층으로 자리잡았다.

7년 전 1178명이었던 19세 이하 인구는 올해 1만960명으로, 9.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영유아·청소년 주민등록인구는 1178명(2014년)→3604명(2015년)→6430명(2016년)→8444명(2017년)→9181명(2018년)→9568명(2019년)→1만453명(지난해)→1만960명(올 5월 기준) 등으로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생협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원

생협 3곳과 업무협약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생활협동조합 3곳과 협업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과 김영향 두레생협 회장,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는 최근 서울 aT 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친환경 사회적 가치 공유 등이 있다.

공사는 협약을 맺은 생협에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 두레생협은 비닐포장 대신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고, 아이쿱은 친환경 종이에 담은 생수를 보급한다. 한살림은 재활용 보냉가방을 제작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생들 지역 청소년 멘토로 나선다

한전 '빛드림캠퍼스' 100명 참가

광주·전남 대학생 100명이 여름방학 동안 지역 청소년 멘토로 나선다.

한국전력은 광주·전남 대학생 봉사단 'KEPCO 빛드림캠퍼스'를 선발하고 6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협업해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경숙 한전 상생발전본부장과 대학생 멘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됐다.

빛드림캠퍼스 참가자는 7~8월 두 달 동안 지역 아동센터 곳곳에 주 2회 봉사를 펼친다.

초·중학생의 멘토로 나서며 학습지원과 진로탐색, 환경정화 봉사 등을 할 계획이다.

한전은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취업 멘토링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일 한국전력 'KEPCO 빛드림캠퍼스'에 참여하는 광주·전남 대학생 대표가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힘 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MCS, 노사공동 윤리·인권경영 선포



권기보(왼쪽) 한전MCS 사장과 임순규 노조위원장이 '노사공동 윤리·인권경영 서약'을 맺고 있다. <한전MCS 제공>

청렴리더 선정·'너나들이데이' 운영

한전MCS는 최근 나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1 노사공동 윤리·인권경영 선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MCS는 한국전력 자회사로, 올해 1월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정부 경영평가도 받는다.

한전MCS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한전 자회사로 나주 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전국 197개 사업장에서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현장 고객센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기보 한전MCS 사장은 지난 2019년 7월 임명된 뒤 오는 2022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권

사장은 한전 영업본부장과 영업처장을 지냈다.

한전MCS에는 일반 정규직 4254명과 비정규직(기간제) 81명 등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420억5300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91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에는 권 사장과 임순규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400여 명의 임직원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노사공동 윤리·인권경영 선언문을 읽고 청렴과 윤리,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한전MCS는 각 사업소별 청렴리더 196명을 뽑고 매달 첫째 주 중 하루를 '너나들이데이'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공개 모집

23일까지 접수...4곳 선정

운용사별 500억원 약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오는 23일까지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펀드 위탁 운용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사학 연금은 4곳을 최종 선정해 각 운용사별로 500억원

이내 금액을 약정할 계획이다.

1차 정량평가와 위탁운용사 현장실사, 2차 정성 평가(PT)를 통해 운용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학연금은 이번 평가에 환경과 사회 책임을 다하는 ESG 추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사는 8월 말 발표된다.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이다.

제안펀드 결성 규모가 3000억원 이상으로, 30% 이상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출자확약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학연금은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의 대체 투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역량 있는 운용사를 선정해 사학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